

# 한설야 소설의 경성/만주 표상과 비결정성의 문화지리

- 『마음의 향촌』(1939), 『대륙』(1939)을 중심으로

하 신 애\*

## 요약

---

이 글에서는 『마음의 향촌』(1939), 『대륙』(1939)을 통해 한설야 소설의 경성/만주 표상이 담지하는 해체적 국면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김남천에게 있어서 만주는 국내와 대비되는 “다른 가능성”을 제공하는 곳이었으며, 이때 그 ‘다른’의 내용은 부재했던 데 반해 이기영의 만주는 반근대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선명하게 코드화된 공간이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한설야는 『마음의 향촌』·『대륙』의 서사 가운데 오리엔탈 클럽이라는 스파이 집단/전쟁 기계를 배치함으로써, 제국주의에 의해 포획되어 ‘무갈등’의 시공으로 완결될 위험에 처한 경성/만주에 갈등을 촉발시켜 이들 공간을 국제적 충돌·경합의 장(場)으로서 다시금 “산만히” 분화(分化)시켰다. 나아가 “동양 먼로주의”의 지하에서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묘사되는 오리엔탈 클럽은 경성/만주 간 망명을 유발함으로써 두 작품의 공간성을 연동시키는 한편, 『마음의 향촌』·『대륙』의 초항/조마려를 각각 스파이/협화의 딸로서 대칭적으로 형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1939년이라는 동일 시점에 사회주의/제국주의라는 각기 다른 대주체에 대한 지향을 내포하는 것으로도 독해되는 『마음의 향촌』·『대륙』의 연동된 서사들은 한설야가 경성-만주를 아우르는 대동아의 지역/정체

---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객원교수, shaderiver@naver.com

성을 다음과 같이 상상하고자 했음을 드러낸다. 즉 대동아는 1939년이라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입장”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러 전망들이 상충하는 비결정성(Undecidability)의 공간이었다. 한설야가 추구했던 대륙문학은 개별 항행자(航行者)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잡박(雜駁)”하고 “서로 다른 정신들이 동석(同席)하며” “결론이라는 틀에 붙잡히지 않는” 포획 이전의 흐름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적 욕망에 의거하여 분열을 초래하는 전쟁 기계에 초점을 맞추어 한설야 소설의 공간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제국에 의해 코드화되는 동시에, 개별 세력들의 박리(剝離) 및 융해(融解)를 유발하기도 했던 당대 문화지리의 해체적 일면을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공간성을 국가장치의 포획/전쟁기계의 융해라는 양방향적 운동의 산물로 파악하는 관점은 경성/만주라는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제국-식민지의 공간성 전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만주, 경성, 대동아, 지역 정체성, 문화지리, 전쟁기계, 비결정성

---

## I. 들어가며- 자본주의 일상세계와의 결탁과 대동아 공간의 상상

한설야 문학에 있어서 1930년대 후반은 일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당시는 한설야가 카프 검거로 인한 복역을 마친 후(1935.12) “감옥 밥술이나 좋이 얻어먹은”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연구”를 해야 했던 시기이자, 더 이상 유효하게 통용될 수 없었던 사회주의적 전망을 대동아의 시국과 양립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했던 시기인 것이다(한설야 1990, 156, 159). 이 시기 프로

문학을 다룬 연구들은 사회주의 운동의 “분쇄” 이후 작가들의 초점이 사상이나 관념에서 생활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문학과사상연구회 2000; 나명순 2002; 이경재 2010). 김남천이 언급했듯이, “사상의 붕괴니 이데오로기의 불신이니 하는 표제가 번거롭게 나붙고 있는” “사실의 시대”에 이르러 이들은 “관념에 비하여 생활이 언제나 우위하다는 점”을 진심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이 글에 따르면 당대 “문학의 진로를 곧바로 추진(推進)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아모 힘도, 가치도 없어진 독단적 상식에 불과한 관념”이 아니라 “현실적 생활에서부터 출발하는 리얼리즘”이었던 것이다(김남천 1939b). 이러한 “생활의 재인식”에 대한 의지는 출소 직후 한설야가 기고한 글에서도 동일하게 표명된다.<sup>1)</sup>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두』(1938), 『술집』(1939), 『이념』(1939) 등 단편에 드러난 생활로의 복귀는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여 “현실의 구체성·생활에의 적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교환 가치적 질서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일상세계”로 접어들어 생존을 위한 ‘체제 내부에서의 투쟁’에 직면하게끔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한다(문학과 사상연구회 2000, 82-88, 189; 나명순, 2002). 다시 말해 한설야 작품에 있어서 생활은 사상이 붕괴된 식민지 말기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념 성찰”이나 자본주의에 근간을 둔 “일상적 투쟁”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었던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생활로의 복귀가 가져다 준 일상적 투쟁의 가능성이 장편소설에 이르러서는 결코 유효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가령 김남천은 이 시기 발표된 『마음의 향촌』(1939)

1) “나는 좀 더 심각히 내 주위를 응시하고 싶고 좀 더 내 발 아래를 살살이 파보고 싶습니다. (중략) 내가 스스로 내 족적을 찍어논 나의 생활과 또는 내 생활과 직접간접으로 기연을 가지고 있는 주위환경과 그리고 내가 가장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고향을 재인식 재음미 할 것을 나는 속깊이 다짐두었습니다.”(한설야 1936).

을 두고 “예술가가 의탁할 곳은 허풍선이나 유령 같은 관념이 아니라 정히 생활 그 자체임을 망각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한설야씨의 일년간의 자기검토는 눈물겨운 노력이지마는 금후의 행방을 저속히 우려케하는 작품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즉 김남천(1939a; 1939b)에 따르면 한설야의 문학 세계가 “사회인으로부터 생활인으로 이동되었다고 봄이 온당”하지만, 이것이 “장편에 이르면 완전한 무의미(無意味)”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김남천의 혹평은 특히 『마음의 향촌』이 “일(一) 기녀(妓女)에게 비상한 사상을 주입하여 그로 하여금 요리점에 모여드는 시정의 속중배(俗中輩)를 비웃게 하는” “조롱이나 조소”로 점철되고 있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작품 초반 “모든 사람을 싫진 비웃어주라는 냉조(冷嘲)” 및 퇴폐의 아이콘이었던 기녀 초향은 작품 후반에 이르러, 뜻밖에도 그간 속중배들과의 생활을 통해 모은 군자금을 지닌 채 혁명 모국인 대륙으로 망명하는 투철한 스파이의 모습으로 전환된다. 이는 ‘체제 내부에서의 투쟁’의 근간이 되었던 생활로의 복귀를 대동아라는 보다 넓은 시공간에서 펼치고자 하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식민지 말기라는 사상적 붕괴의 시점에 있어서, 속중배 무리로 표상되는 자본주의 일상세계와의 결탁 끝에 드러나는 경성-만주의 공간 표상이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한편, 한설야는 이 시기에 이르러 그간 주요한 단점으로서 지적받았던 “감각과 사상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시도를 선보인다는 점에도 아울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황혼』(1936)을 둘러싼 임화와의 논쟁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간과 환경과의 괴리”였다. 즉 “인간들이 죽어가야 할 환경 가운데서 인간을 살려가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직관력이 찾아낸 산 생활세계가 등장인물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임화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임화 1940, 565), 이 시기 한설야 문학의 관건은 생활로의 복귀를 통해 새로운 인물형을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사상, 관념을 담지한 인물들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환경(현실적 형식)을 모색하는 것이었다(한설야 1938; 1939). 이는 곧 “너무도 협애(狹隘)”해진 식민지 말기의 시국에 직면한 한설야가 기존에 축적된 사회주의자의 감각에 맞는 현실적 형식을 갖춘 환경을 찾기 위해 『대륙』(1939)으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를 짐작케 한다.

주지하듯이, 반도인이 처한 실상을 대륙의 전망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시도는 한설야에 한정되어 나타났던 것만은 아니다. 1930년대 후반 대륙·만주는 전향으로 인해 전망을 잃은 식민지 사회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었음을 상기하자. 가령 김철·신형기·정종현·서영인은 이 시기 이기영·김남천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만주가 “순박하고 건강한 생명력을 지닌 프롤레타리아”를 바탕으로 “미개(未開)”에 대한 “개조”를 수행함으로써 “농촌 공동체의 이상”을 추구하거나, 혹은 “국내의 자본주의적 속물성과 타락상”에 대비되는 “건설과 개척의 땅”으로서 그려진 바 있음을 언급한다(김철 2006; 서영인 2008; 정종현 2011; 신형기 2013). 그러나 한편으로 만주를 새로운 문학적 영토로서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기영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적 투쟁의 역사로부터 벗어나 만주라는 ‘처녀지’에 무(無)갈등의 계몽적·균질적 시공간을 확보해 가는 제국적 주체화의 과정으로 수렴될 위험성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정종현 2011, 3부 2장). 그렇다면 생활로의 복귀를 통해 『과도기』의 창선, 『씨름』의 명호와 같이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의 면모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인물들을 살려 갈 새로운 대지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그간 축적된 사회주의적 전망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했던 삼중(三重)의 과제는 한설야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던 것일까? 다시 말해 선행 연구에 의해 지적되었던 것처럼 김남천에게 있어서 만주라는 공간이 국내의 타락상과 대비되는 “다른 가능성”을 제공하는 곳이었으며, 이때 그 ‘다른’의 내용은 텅 비어 있었던 데 반해 이기영의 만주는 반근대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선명하게 코드화된 공간이었다고 한다면(서영인 2008), 한설야에게 있어서 대륙-만주라는 ‘새로운 세계’는 과연 어떠한 기의를 담지한 채 드러나게 되었던 것일까? 아울러 “환경과 타협하거나 환경에 추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과 싸움”(한설야 1939)으로써 삶을 모색하고자 했던 한설야의 관습화된 투쟁적 태도는, 당대 제국의 지정학적 프레임과 맞물려 어떠한 문화 지리적 상상들을 초래했는가?

이 글은 『마음의 향촌』(1939), 『대륙』(1939)에 나타난 경성/만주 표상에 초점을 맞추어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경성/만주의 공간 이면에 배치된 오리엔탈 클럽이라는 스파이 집단/전쟁 기계의 장치에 주목함으로써, 제국에 의해 코드화되었던 한편으로 개별 세력들의 박리(剝離) 및 융해(融解)를 유발하기도 했던 당대 문화지리의 해체적 일면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들뢰즈·가타리가 언급한 바 있듯이 “전쟁기계(machine de guerre)”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포획’을 통해 단일 권력을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 장치의 대척점에 위치한 채, 대등한 세력들 간의 “전쟁”을 촉발함으로써 “자기 동일적인 국가의 형성을 방해하는” 영토화에 대한 저지(沮止)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들뢰즈·가타리 2001, 684-690; 이진경 2002, 12장). 이때 작품 속에서 자본주의적 욕망에 눈이 먼 채 갈등·분열을 영속적으로 초래하는 오리엔탈 클럽의 속중배적 면모는 제국주의에 의해 포획되어 자칫 ‘무갈등’의 시공간으로 완결될 수 있는 경성/만주를 잡다한 전망들이 상충하는 비결정성(Undecidability)의 공간으로 의도치 않게 환원시켜버린다는 측면에

서, 투쟁의 가능성을 지속시키는 한편 금지된 혁명 모국의 사상·담론·공간성을 식민지 내부로 다시금 흘러들게끔 하는 역설적 계기로 작용했다. 즉 이 시기 한설야 소설에 표상된 경성/만주의 공간성은 국가장치의 포획/전쟁기계의 용해라는 양방향적 운동의 산물이었으며, ‘체제 내부에서의 투쟁’의 무/의식적 근간이 되었던 자본주의 일상세계와의 결탁은 당대 대동아의 문화지리적 상상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작동했던 것이다.

## II. 경성/만주의 대칭성과 전쟁기계의 배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마음의 향촌』·『대륙』간의 대칭성 및 서사의 이면에 각각 배치된 오리엔탈 클럽이라는 전쟁기계의 장치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sup>2)</sup> 식민지 말기에 발표된 한설야의 장편소설 중에서도 『청춘기』(1937)·『대륙』(1939) 등의 작품은 “무위와 피곤과 변설의 인간”들만이 가득한 당대 환경 속에서 이념적 지향성을 견지하거나, “오족협화·왕도낙토라는 제국의 대동아 담론과의 길항”을 선보인다는 측면에서 활발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강진호 2008, 109-116; 이경재 2010, 242-252). 반면 『마음의 향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는데, 이는 이 작품이 “1930년대 후반의 퇴행적 정신을 대변하는 세태소설 정도로 의미 부여”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경재 2010, 96). 그러나 이러한 그간의 연구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암시적”으로 쓰인 이

2) 『마음의 향촌』은 1941년 박문서관에서 『초향(草鄕)』이라는 제목으로 단행본 출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88년 태학사에서 간행된 판본을 텍스트로 삼았다(한설야, 1988).

작품은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 식민지 말기의 시대상 및 다른 문학 텍스트들과의 연관 하에 보다 세심하게 독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마음의 향촌』은 만주라는 공간성을 바탕으로 제국의 대동아 담론과의 길항을 선보였던 『대륙』과 동일한 시기에 연재되었으며, (후술하듯이) 동일한 공간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이때 향촌(경성)-대륙(만주)으로 표상되는 각 작품 간의 공간적 대비 및 해외로의 망명-공동체의 구축으로 요약되는 서사의 중첩은 1939년이라는 시기에 발표된 두 작품이 식민지 말기 사회주의자들의 지리적·이념적 전망을 담지한 대칭적 기획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마음의 향촌』에 대해 “1930년대 후반의 퇴행적 정신을 대변하는 세태소설”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던 주된 요인은 기생의 신분으로서 타락한 인간 군상들과 교류하는 초향의 캐릭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인텔리 출신으로 사회주의자인 오빠를 두고 있으며, 상해 유학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지도를 받기도 했던 초향의 이력은 그가 단순히 연애나 가족사 등을 선보이기 위한 기생의 역할로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당대 이념적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존재로서 규정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구나 상해 체류 당시 초향은 “오리엔탈 구락부”라는 댄스홀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제시되는데, 이때 작중에 드러난 “오리엔탈 구락부”의 공간 기술은 뜻밖에도 『대륙』에서 “스파이”의 비밀 기지로 제시되었던 “오리엔탈 클럽”의 풍경과 흡사할 정도로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 두 대목을 비교해 보자.

1) 현관으로부터 파라에 들어가니 한판에 커다란 테이블이 있고 그 주위에 소파가 둘러 놓였는데 남녀 몇 사람의 손님이 섞여 앉아서 담배를 피며 무슨 환담을 하고 있었다. 왼편 프란체 룸은 맨첨 나체무용을 할 목적으로 지은 것인데 지금은 당국의 금지로 그릴로 쓴다고 이씨는 설명하고 또 벽에 붙어 있는 라이팅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지와 봉투를

가리키면서 (중략)

두 사람은 뒷문을 나서 복도를 건너 댄스홀로 들어갔다. (중략) 그다지 밸런스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성수가 난 듯이 함부로 상체를 비비고며 마치 고양이와 공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다. (중략) 그네 위에는 높다란 코코아나무 화분이 서 있고 그 위에는 만든 원숭이가 당그랴게 앉아 있는데 그 눈에는 붉은 전구가 백혀 찬란히 반짝거리고 있다. 간접조명의 효과를 내부 장식에 이용하여 굵은 곡선의 다이나믹한 해조를 그 조명으로 강조하고 있다. 천장은 쿠펠 홀리존트를 사용하여 은하와 구름이 서서히 흐르고 별들이 반짝여 그 명멸의 변화와 템포의 통제가 요란한 가운데 평화한 분위기를 풍겨내고 있다(한설야 1988, 『초향』, 88-91).

2) 두 사람은 (오리엔탈 구락부의) 정면 파자로 들어갔다. 한 가운데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있고 그 주변의 소파에 몇몇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왼쪽으로 이어진 프란체 룸은 나체 무용의 목적으로 세워졌으나 그런 무용이 금지되자 지금은 그릴로 되어 있었다. 오른쪽 구석은 보석점으로 그 옆 벽에는 두 개의 라이팅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중략)

두 사람은 안쪽 문을 밀고 복도를 가로질러 홀로 들어갔다. (중략) 취했는지 비틀거리는 나쁜 손님들은 그저 상체를 비틀며 고양이와 공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은 춤을 자신만만하게 추고 있었다. (중략) 댄스장의 구석에는 커다란 코코아나무가 놓여있고 그 위에는 실물과 똑같은 모형 원숭이가 매달려 있었다. 전구로 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간접조명의 효과를 내부 장식에 응용하여 굵은 곡선의 다이나믹한 조화를 빛으로 강조하고 모든 것을 그 안에 녹여내고 있었다. 천장은 쿠펠 홀리존트를 사용하여 은하와 구름이 흐르고 별이 반짝이며 명멸하는 변화와 템포의 통제가 조화를 이뤄 선율적이며 평화로운 빛의 전투를 연상시켰다(한설야 2003, 『대륙』, 59-60).

위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상해 체류 당시 초향이 “현대인의 사고”를 익히는 한편, 댄서라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드나들었던 “오리엔

탈 구락부”의 풍경은 『대륙』에서 스파이 활동의 거점이자 갈등 양산의 진원지로 제시되었던 신경(新京) “오리엔탈 클럽”의 풍경과 겹쳐진다(한설야 2003, 53-59).<sup>3)</sup> 따라서 (상해와 신경이라는 지리적 거점의 차이는 있으나) 과거 “민중의 반일(反日), 반만(反滿) 기세”를 선동하는 국제 스파이 집단과 연관을 맺었던 것으로 암시되는 초항이라는 인물은 “오리엔탈 클럽”이 초현대식 댄스홀이라는 대외적 정체성 이면에 스파이 기지라는 배후의 정체성을 잠복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퇴행적 정신”의 아이콘이라는 표면 아래 또 다른 임무를 담지하고 있으리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설야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 경성/만주라는 각각의 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각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오리엔탈 클럽이라는 장치가 담지하는 배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향촌』에 나타난 향촌 즉 식민지 경성의 공간성을 살펴보자. 1930년대 초반 사회주의자들의 공간 인식을 다룬 타 문학 텍스트들과 비교할 때, 『마음의 향촌』에 나타난 경성은 제국의 전시 체제에 의해 포획되어 운동의 벡터(vector)들이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제국이 규정하는 지역/정체성 범주 이외에 다른 신체적/공간적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폐색된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심훈의 『동방의 애인』(1930)에 나타난 경성의 경우 제국에 의해 “법이 지배하는 지대”(들뢰즈·가타리 2001, 741)로서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미년 만세 운동” 등의 봉기가 발발하거나 망명·밀입국을 통해 금지된 사상·조직을 “무역(貿易)”하는 것이 가능했던 운동성/침투성을 담지한 공간

3) 이때 『마음의 향촌』은 조선어로, 『대륙』은 일본어로 쓰인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번역으로 인한 변화를 제외한다면, 위 대목들 간의 일치성은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웃음을 상기하자(심훈 1994, 55-57, 68). 반면 『마음의 향촌』의 경우 조선공산당 검거(1928)·카프 해산(1935) 등을 거쳐 역내 사회주의 운동이 이미 분쇄된 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이때 경성은 중일전쟁(1937)·동아신질서 건설 선언(1938)을 기점으로 제국의 “동아고립주의”(김명식 외 1939)에 의해 봉쇄된 채 더 이상 “너른 바다”나 “대륙”을 “똑똑히 내다볼 수 없는” “절해고도(絶海孤島)”의 공간으로서 그려졌던 것이다. 이러한 경성의 폐쇄적 공간 질서는 상해 등 해외 운동의 거점들과 비교할 때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작품 속에서 상해가 서로를 “동지니 형제니” 하는 혁명가들의 “너른 천지”로서 회상되었던 반면, 작품이 연재되는 1939년 시점의 경성은 더 이상 운동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는 “마르고 여윈 땅”으로 표상되었던 것이다(한설야 1988, 99, 153, 502-503).

이처럼 『마음의 향촌』에서 표상되는 경성이 제국의 체제에 의해 속박된 채 이미 물샷틈없이 코드화된 공간이었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대륙』에서 표상되는 만주는 코드화가 새로이 자리 잡아야 하는 공간이자 미개에 대한 개척을 수행하는 제국의 운동과 조응함으로써 주체 및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치녀지”로 판명된다. 실제로 『대륙』에 나타난 만주의 이미지는 “답답하고” “마르고” “권태로운” 식민지 경성과는 달리, “끝없는 넓이와 깊이”를 지닌 채 기존의 “도회생활에서 해방되어 분방함을 느끼게” 하는 풍요롭고 열린 공간으로 제시된다. 이는 곧 만주가 식민지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무풍지대(無風地帶)”로 명명되는 “내지”의 “더러운 공기”를 벗어나, 마적·반일 만군과 대면하는 “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새로운 투쟁적 전망을 모색할 수 있게끔 하는 가능성을 지닌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드러낸다(한설야 2003, 11-13).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만주가 담지한 이러한 공간적 특성들은 토착민·마적을 주권 창출 및 제국

적 주체 형성을 위한 “구성적 외부”로서 배치하고자 하는 파시즘적 권력의 내적 기제와 연동됨으로써 제국의 공간 포획 및 구획화의 기반이 되거나(손유경 2009, 195, 215), 혹은 왕도낙토·오족협화라는 제국 이데올로기가 지닌 허약함 및 “쉽게 정복될 수 없는 대륙의 복잡한 세력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반식민의 상상력”을 가능케 했던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고 한다(서영인 2008, 334-347). 그렇다면 처녀지에 대한 제국의 ‘흙 파기’에 기여하거나, 혹은 제국의 프레임으로 완전히 포획 불가능한 ‘매끈한 공간’의 속성에 대한 강조로 귀결될 수도 있는 만주라는 ‘열린 공간’의 특성은 한설야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 어떠한 지리적 전망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 아울러 대륙이 지닌 ‘열린’ 공간적 특성은 향촌·대륙이라는 두 공간의 공유 지점이자 매개체로서 등장하는 “오리엔탈 클럽”이라는 장치에 의거함으로써, 향촌의 폐색된 공간성과 어떠한 상호작용의 장을 형성했던 것일까?

위 질문을 해명하기 위해, 우선 한설야 소설에 나타난 오리엔탈 클

4) 들뢰즈·가타리에 따르면 “흙 패인 공간(*espace strié*)”은 국가를 비롯한 사회 구성체들의 지배 및 통제에 의거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인구, 상품, 사상, 자본 등 세계 공간을 가로지르는 흐름의 총체를 포획하여 “법이 지배하는 지대”로서 재구성하는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 이들에 따르면 “지배가 미치고 있는 공간에 흙을 파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 중 하나이며, “국가의 응수를 넘어서려는 모든 위협에 맞서 국가는 공간에 흙 파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한편 매끈한 공간(*espace lisse*)은 정확한 구분선이나 조직화된 형식, 소유·점유의 규제가 없는 사막·바다·초원과 같은 평평한 공간이다. ‘매끈한 공간’은 일정한 위치나 척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와 다른 하나를 휩쓸어 가는 횡단 운동”으로서 논의되며, “(국가장치가 파놓은 흙의) 양쪽 둑을 깎아내고 중간에서 속도를 내는”, “출발점도 끝도 없는 시냇물”로서 표상된다. 들뢰즈·가타리는 매끈한 공간과 흙이 패인 공간이 “사실상 서로 혼합된 채 존재”하며, “매끈한 공간은 끊임없이 흙이 패인 공간 속으로 번역되고 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한편 흙이 패인 공간은 부단히 매끈한 공간으로 반전되고 되돌려 보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매끈한 공간이 흙이 패인 공간에게 포획되어 감싸이는가 아니면 흙이 패인 공간이 매끈한 공간 속으로 융해되어 매끈한 공간을 펼치도록 해주는가?”는 지속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질문 중의 하나이다(들뢰즈·가타리 2001, 54-55, 741-742; 이진경 2002, 14장; 아르노 빌라니 외 2012, 131-132).

럽의 면모를 살펴보자.

그 클럽은 신경에서 제일 큰 댄스홀로 그 설비와 장식은 초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계단 밑의 큰 홀에서는 스페인풍의 원 스텝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중략) 취기가 돌 때쯤에 귀부인의 품위를 지닌 요염한 중년여성이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유창한 일본어는 아니었지만 영어의 악센트와 품위 있는 기품이 시선을 끌었다. (중략)

“저는 미국에 오랫동안 있었고 유럽보다는 미국을 좋아하지만 미국도 한 물 갔어요. 먼로주의를 버리고 나니 보기 흉한 알몸이 완전히 춘화가 되어 버렸지요. 러시아는 정치기구가 아무리 바뀌어도 역시 음화로 영원히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앵글로 색슨도 틀렸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오아마 부자에게 요염하게 등을 보였다.

“세기의 희망은 일본뿐이에요. 정말 유니크한 존재예요. 전 무엇보다도 일본의 성격, 그 밝은 성격이 좋아요. 강하고 밝고 바르고. 일본을 가장 잘 상징하는 말이지요.” (중략)

그녀의 정체는 물론,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그 은행 이층의 한 방에는 정교한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무전기는 102 킬로와트 발전기 두 대와 29킬로와트 발전기 한 대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직류 전기와 자가 발전장치를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신경과 샌프란시스코 간을 직통 또는 상해 중계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X국계 석유 지점의 위층에는 그보다 소규모의 라디오 장치가 있어 북경, 남경, 상해, 무한 각지와 무전 연락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절대 비밀이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행원이나 점원들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여기에 드나드는 인간은 극히 소수였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스파이는 굉장히 많았다. 러시아인, 독일인, 영국인, 미국인, 지나인, 만주국인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밀정해 온 사항을 제공하고 자국이나 음모국으로부터

적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 멋대로 자료를 훼손하기도 하고 스파이끼리 냄새를 맡은 자료를 교환하기도 했다. 또 기밀 서류를 위조하여 동료간에 레포의 인치키 매매를 하기도 했다(한철야 2003, 『대륙』, 52-59)

위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오리엔탈 클럽은 신경·상해 등 중국-만주의 주요 거점에 위치한 최첨단의 댄스홀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동양 먼로주의를 따라 만들었다”는 옥호 하에 북경·남경·무한·샌프란시스코와 연계된 국제 스파이 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불법 세력이기도 했다. 이때 오리엔탈 클럽이 국가 등의 포획 장치와는 달리, 단일한 목적 하에 조직화된 구성체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녀의 정체는 물론,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도 모른다”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오리엔탈 클럽은 균질적 정체성이나 정치적 의도에 의거하여 범주화된 세력이 아니며, 오로지 “돈에 눈이 어두워 멋대로” 행동하는 개별 단위들의 잡다한 행위성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일련의 흐름인 것이다. 댄스홀·은행·석유 지점의 한 방에 위치한 것으로 제시되는 이 스파이 집단이 근대성·자본주의·교통(交通)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오리엔탈 클럽은 이를 통해 혼종적·외부적·국제적 속성을 담지하는 한편, 식민지-대륙에 자리 잡고자 하는 제국의 지역질서를 흐트러뜨리기에 이른다. 가령 오리엔탈 클럽은 일본인들을 접대하기 위한 초현대식 댄스홀이라는 명목 하에, “스페인풍의 원 스텝 곡, 영어의 악센트, 코코아나무와 원숭이, 샴페인” 등이 어우러져 “모든 것을 그 안에 녹여내는” 근대의 혼종적·융해적 시공간을 연출함으로써 단일할 것으로 상정된 제국의 공간질서에 대한 오염을 야기한 바 있다(한철야 2003, 52, 59-60). 아울러 보다 많은 “보수”를 추구하는 등, “자본주

의 일상세계”와 결탁한 각국 스파이의 산발적 행위들은 제국-만주라는 한정된 판도에 보다 많은 국제 세력들을 연루시키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즉 특정 세력에 대한 충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여금”을 목적으로 보다 높은 입찰금을 제시하는 매입자를 찾고자 하는 이들의 갈증은 제국-만주국의 프레임 외부에 존재하는 국제연맹·중국·미국·독일·영국 등의 세력을 끌어들이므로써, 제국-만주국의 질서에 의거하여 코드화되어야 할 내부 영토를 외부 세력들과의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국제 관계의 상충적 판도로써 확대·분열시키고 만다. 그렇다면 “보국(報國)”이라는 명목 하에 무(無)방향적 확장만을 선보이는 한편, 마담 류오락(柳誤落=類誤落)의 이름이 표상하는 바와 같이 단일한 무리(類)의 구축을 그르치고(誤) 뿔뿔이 흩어지게끔 하는(落) 오리엔탈 클럽의 면모는 들뢰즈·가타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동양 먼로주의”의 지하에서 문서 위조·밀정·매수·자료 훼손 등의 행위를 통해 끝없이 불화와 충돌을 조장하고 단일 세력에 의한 코드화를 방해(sabotage)하는 일종의 “전쟁기계(machine de guerr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가타리가 언급했듯이 (대등한 세력들 간의) “전쟁”이 (어떠한 대상에 대한 포획과는 달리) “국가와 반대되며 단일한 국가 권력의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라면, 전쟁기계는 “전사들의 근본적인 무규율성(indiscipline), 버리거나 배반하겠다는 끊임없는 협박, 명예에 대한 매우 변덕스러운 감각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자기동일적인 국가의 형성을 방해하는” 영토화에 대한 ‘저지(沮止)’의 장치인 것이다(들뢰즈·가타리 2001, 684-690; 이진경 2002, 12장). 이때 “자국”과 “음모국” 간의 갈등·대립에 의거할 때에만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이 스파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상황은 바로 『치너지』가 선보였던, 단일 이데올로기에 의해 완전히 코드화된 “무

(無)갈등의 시공간”에 직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착민·마적을 포섭·포획함으로써 주권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국의 코드화가 진행되었던 한편으로, “자가 발전장치”와 “무전기”를 갖춘 채 분주하게 세력 간 적대를 주선함으로써 구조화된 사회를 제각각의 패거리들로 흩어놓고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생활·투쟁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전쟁기계의 운동은 포획/융해의 양가적 가능성에 직면한 만주의 공간성을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했는가. 한편, 『마음의 향촌』에서 초향이라는 행위주체(agent)에 의거하여 식민지 경성에 침투한 이 전쟁기계는 제국의 “동아고립주의”에 의해 물샐틈 없이 포획되어 ‘무갈등’의 시공으로서 이미 완결된 듯 보이는 향촌에 이르러 어떠한 분열을 촉발함으로써 식민지인들을 ‘갈등의 공간’으로 누출시키고, 이를 통해 대륙의 ‘열린’ 공간성을 동아의 필터 내부와 다시금 연동시키는 데 성공하는가. 이처럼 근대성·자본주의·교통(交通)을 근간으로 하는 전쟁기계로서의 정체성을 담지한 스파이 집단이 향촌-대륙에서 수행하는 역할들을 보다 상세히 조명하기 위해, 다음 절로 넘어가 보자.

### Ⅲ. 폐색된 식민지 공간과 마-더랜드의 전망

1939년 7월 10일-12월 7일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한설야의 『마음의 향촌(鄉村)』은 지나사변 이후 상해로부터 귀환한 것으로 제시되는 초향(草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정치를 말하고 천하를 논해야 하는 도시” 상해를 떠나 “답답한 서울바닥”에 갇히게 된 식민지 사회주의자들의 위치를 형상화하고 있다(한설야 1988, 99, 153, 502-503). 『마음의 향촌』은 상해와 경성이라는

두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때 지나사변 이후 “상해의 상황이 급박해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귀환한 경성은 “권태와 피로”, “안전제일주의”만이 횡행하는 “빠안한 거리”로 기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눈길을 끈다.

차를 타든지 걸어 보면 서울이란 참말 손바닥만하다. 어디나서든지 남산과 북악이 뻗어 쳐다보이고 동쪽과 서쪽이 왼손과 바른손을 보는 것 같이 빠안하다. 서울은 비밀이 없는 가난한 거리요 웅심깊음이 없는 약삭바른 거리다(한설야 1988, 『초향』, 502).

초향이 머물렀던 1930년대 초반의 상해와 비교할 때, 경성의 “빠안함”이 곧 제국의 코드화로 인해 고정된 노선만을 맴돌 수밖에 없는 식민지인들의 단조로운 입지로부터 파생된다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마음의 향촌』에서 1930년대 초반의 상해는 각자의 운동을 펼치는 다국적 혁명객들의 집결로 인하여 겹겹의 사회문화적 층위를 형성한 교차적 공간으로 그려진 바 있다. 이때 선교사·계몽운동가·민족주의자·독립운동가 등 각기 다른 동인(動因)에 근간을 둔 세력들이 혼재된 상해라는 공간은 망명객들로 하여금 각 운동들과의 길항을 통해 중층적인 정체성을 영위하게끔 하는 바탕이 되었다. 가령 상해 시절 초향은 서양선교사의 딸이 경영하는 영어학교에 다니며 근대적 지식을 얻고, 하와이 출신의 대학 강사 이우식을 통해 음악·판스 등 “문화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을 익히는가 하면, 거류민 위안회를 통해 조선소리와 가야금을 접함으로써 민족에 대한 유대감을 체감했다. 아울러 초향은 “몸과 맘이 강철과 같은” 독립운동가와의 접촉을 통해 사상적 감화를 얻는 등, 상해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폭넓은 사상·담론들을 축적함으로써 중층적인 정체성을 영위했던 것이다(한설야 1988, 87-100, 549, 552). 그러나 사변을 기점으로 돌아온 “손바

딱만 한” 경성은 일체의 운동성 및 응승깊은 정체성의 층위를 찾아볼 수 없는 “여윈 땅”으로 변모해 있다. 즉 “항구도 배도 없고” 섬과 같이 고립된 채 “가까운 포구를 뱅뱅 돌” 뿐, “너른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는 초향의 모습은 제국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포획되어 정체성 구현의 폭을 상실한 채 오로지 규정된 노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흠 패인 공간의 피동적(被動的) 풍경을 가시화한다. 더구나 “꽃을 길르라고 해보니까 이땅이 얼마나 마르고 여윈것인지를 알수 있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 식민지 경성은 “등장인물을 죽이지 않고 살려갈” 환경을 모색하고자 했던 한설야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제국과는 다른 이념적 배경을 지닌 인물들을 “살려갈 수 없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의 공간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지금 그가 사는 사회에는 이렇다 할 한 개의 인간도 없는냥하다. 신선한 냄새도 없고 인간다운 운치도 없다. 무슨 커다란 감상이 있거나 모험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중략) 말하자면 그저 참새잡이를 다니는 조심성스러운 사냥꾼 같은 사람뿐이오 가까운 포구를 뱅뱅도는 잔사리잡이 어부와 같은 인간들 뿐이다.

꽃을 길르라고 해보니까 이땅이 얼마나 마르고 여윈것인지를 알수 있었다. 사람을 찾으려고 해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리운지를 또한 알수 있었다. (중략) “초향씨, 초향씨는 내보기에는 섬과같은데 바다를 잇은듯합니다. 섬은 무엇보다 바다를 잘 알것이오 바다의 넓음을 잘 알것인데..” 그리며 권은 빙긋이 그에게 웃어보였다. 초향이는 한번 개가운 웃음을 던지고나서 “바다? 내게는 바다가 없습디다. 항구도 배도 없습디다. 대체 이 항구를 지나야 저 항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갑해서 죽겠습디다.”(한설야 1988, 『초향』, 13, 168-170).

이처럼 “마르고 여윈” 경성에 속박된 식민지인들에 있어서 유일하

게 돌파구로 남은 것은 바로 경제적 방면인 것으로 제시된다. 실제로 작품 내에서는 “금광나리깅, 실업가, 사장, 은행가, 고리대금업자, 중소상인”으로 대표되는 자본에 대한 욕망만이 “안전제일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용품”으로서 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흐름의 부각은 본격적인 운동의 동력으로써 작용하기보다는 일견 현실 추수적 태도의 일환이자 “지위와 권세에 화석(化石)이 된 사람들”의 “향락”에 불과한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한설야 1988, 11, 13, 62, 431). 작품 초중반 초향이 꾸미는 오각관계의 연극은 이를 뒷받침한다. 즉 “명일(明日)”의 전망을 지닌 “참인간”을 모색한다는 목적 하에 초향이 추진하는 것은 실상 광산 졸부·은행 전무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랑의 “작난”이었다. 이때 이들에게 경쟁을 붙여 한껏 자신의 몸값을 높인 끝에 결국 “거짓말피리”를 붙였을 뿐인 것으로 판명되는 초향의 행위는 권태를 달래기 위한 “어름광대의 살푸리굿”에 그칠 뿐, 실제적인 전망의 형성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한설야 1988, 460). 따라서 김남천이 이 작품을 두고 “일(一) 기녀(妓女)에게 비상한 사상을 주입하여 그로 하여금 요리점에 모여드는 시정의 속중배를 비웃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롱이나 조소가 어떠한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일까?”(김남천 1939a)라는 의구심을 품었던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덧없는 “놀이”에 그치는 듯했던 초향의 기녀 생활-자본주의 일상세계와의 부대감은 작품 후반에 이르러 서사의 이면에서 진행되어 왔던 배후 공작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그 의의를 재고하게 된다. 즉 생활을 위해 “시정의 속중배”들과 어울려야 하는 초향의 직업은 금지된 사상들을 제국의 영토 내부로 밀무역하거나 외부의 밀사들과 접촉하게끔 하는 매개가 되는 바, 실제로 “환락향의 네온사인” 하에 오합난민(烏合亂民)과 접촉하며 “참인간”을 찾기 위해 애

쓰던 초향은 “북선(北鮮) 어느 항구”에서 왔으며 “해사(海事)”를 경영한다는 권이라는 사내와 마주쳤던 것이다. 사회주의자인 오빠 민상기의 동지이자 제국에 의해 “부랑한 자”로 지목되어 수배 중인 권은 손님이라는 명목 하에 초향과 처음 대면하는데, 이때 권은 초향에게 경성을 떠나 “어지러운 머리를 말끔 씻어버리고 그 맑은 정신으로 한번 세상을 고쳐볼” 것을 권함으로써 “마-더-랜드”의 불법적 전망을 식민지 내부에서 재점화(再點火)하기에 이른다(한설야 1988, 55, 149, 169-170). 이때 권이 제시하는 “마-더-랜드”는 “대차관계(貸借關係)”가 없는 “평등”을 지향하고 식민지인으로 표상되는 “한 어미에 두 애비 자식”이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오누보다도 더 정답게 일생을 한 집 한 고장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제국 치하에서 더 이상 공공연히 통용될 수 없었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이념들을 실체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균질화된 경성의 공간 내부에 갈등의 시발점을 형성하게 된다(한설야 1988, 575-576, 590).

실제로 작품 후반부는 무갈등한 “향락”, “놀음”으로 점철되었던 전반부의 “퇴행적” 이미지와는 달리, 초향이 당대 식민지 사회주의자들에게 제시되었던 두 가지 공간적 전망, 즉 “마-더-랜드”와 “노돌에 잇는 전토(田土)”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절해고도(絶海孤島)와 같았던 초향이 권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신체에 잠복시켜 왔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이념/임무를 다시금 실체화하게 되었다면, 전쟁을 앞둔 제국-식민지의 질서체계는 작중 사생아로 제시되는 초향에게 “전토(田土)”의 상속자로서의 입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코드화된 공간 속에서의 주체적 입지를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국 국민의 입지를 부여하는 듯했던 이 부친의 호명은 사생아-적자 간의 위계 및 주변 사람들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좌절되고 만다. 즉 초향은 부친인 이후작과의 대면 이후 “딸

이라고 한번만 불러 주기”를 청하였으나, 초향에게 돌아오는 것은 “후자 아들딸들의 의혹과 경멸” 및 “적확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답변뿐이었다. 이는 곧 초향으로 하여금 “버젓이 갈 권리가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한편, “이십 년을 모른 척 하던 아버지에게 온정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끔 했던 것이다. “의리와 정”이 없는 부모 자식 관계는 필요 없으며, “차라리 나는 죄 없는 백성의 자식”이 되고 싶다는 초향의 인식은 제국이 약속하는 “노들에 잇는 전토”의 상속자가 아니라 “거들킬 데 없는 백성”들로 구성된 “마-더-랜드”를 향한 여정으로 귀착하게끔 하는 계기가 된다(한설야 1988, 140, 182-183, 225-239, 319-328).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가능성을 완전히 펼쳐버린 이후 초향이 마주하는 경성의 아침 풍경은 그가 택한 향후의 행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즉 초향은 “노동복 입은 사람, 변또를 낀 사람, 공장으로 가는 소녀” 등으로 이루어진 “근로의 거리”를 목격한 후 “여테 보지 못 하던 서울을 오늘 아침에 처음 발견한 듯하다”고 언급했으며, 갑작스럽게 “세상이 너무 널르다”고 느꼈던 것이다(한설야 1988, 396-398).

그러므로 제국-식민지의 영토성이 아닌 다른 범주를 선택한 초향의 향후 행보가 정주(定住)가 아닌 망명(亡命)으로 이어지리라는 점, “손바닥만 한” 경성의 코드화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너른 바다” 너머 어딘가를 떠도는 동체(動體)들의 일원이 되리라는 점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이 작품의 결말부는 실제로 초향이 대륙으로 건너가기 위해 지금껏 축적해왔던 자본주의 일상세계와의 결탁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국에 의해 규정된 피동체의 입지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 주력하고 있다. 즉 작품 결말부에 이르러 기생이라는 초향의 위장적 정체성은 사회주의 운동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경성에 잠입한 스파이라는 투쟁적 의미로서 완전히 전환된다. 아울러 초향에 대한

취조를 통해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부량한자를 골라”내고자 하는 경찰서 부장의 발화는 뜻밖에도 상해·남경·북경·한구·항항 등지를 거점으로 제국의 “밝음”과 적대해 왔던 “어두운” 세력들을 가시화함으로써, 단조로운 식민지 경성의 이면에 줄곧 잠복되어 왔던 “비밀”을 폭로하는 한편 서로를 “동지니 형제니” 하는 대륙의 “공기”를 다시금 식민지 경성과 연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가난하고 불안한” 경성의 공간성이 다시금 “웅숭깊은 비밀”을 획득하게 되는 순간이자, 동시에 “왼손과 바른손을 보는 것 같이” 명약관화했던 제국-식민지의 질서체계가 “부량한자”들의 움직임에 의거하여 다시금 “낮과 밤”과 같은 적대·분열과 직면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상해 가서 어떠케 지냈는지 자세 이야기해봐. 하나 빠지 말고.” (중략)

“상해란곳은 본시 밝고도 어두운곳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도 험악한 자들이 많단말야 거게는 그런자가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그런자들을 만나본일이 있느냐 말이다.” (중략) “금박 동지니 형제니 하다가도 그 모양이거든. 상해란 그런놈들이 많이 사는곳야 그러니까 그런 흐린 공기 가운데서 살면서 그런놈들을 모를까담이 있나.”(한설야 1988, 『초향』, 543-573).

이처럼 밝음-어두움의 층위로써 균열을 일으키게 된 제국-식민지의 질서체계는 초향 일행으로 하여금 “마-더-랜드”로 망명하도록 하는 일종의 틈새를 형성한다. 이때 고객들과의 “작난”을 통해 몸값을 올려놓은 초향의 술수는 고객들에게 “비위에 맞는 언약”을 담은 편지를 써서 자금을 모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제국의 정치적 분할선을 넘어 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후 공작의 일환이었음이 드러난다.

즉 이들은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가는 자본의 흐름에 의거하여 제국의 부(富)를 사상 운동의 군자금으로 빼돌리는 한편, “사면초가 중에서도 솟아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본의 힘과 결탁함으로써 폐색된 식민지 경성과 “마-더-랜드” 사이에 연결통로를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것이다(한설야 1988, 596-617).

그리하여 죽은 어머니로 표상되는 “고향”은 “건공(乾空)”에 둔 채로, 또한 제국-식민지가 부여하는 “아버지 아닌 아버지”의 호명은 부정(否定)한 채로, 식민지 사회주의자들은 비로소 식민지 경성이라는 폐색된 정체성 공간을 떠나 “마-더-랜드”로의 이행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한설야 1988, 637, 650). “구경가는 것도 도망가는 것도 아니”오 “차라리 살라고 가는 것”이라는 이들의 여정은 김남천이 평한 바 있듯이 제국의 “배후”에서 “정체 몰르게 움직이는”(김남천 1939b.) 이면의 운동성을 생성하는 것이었으며, 코드화된 무갈등의 시공간을 각 세력들 간의 적대에 의거하여 분화시킴으로써 투쟁적 인물들을 “살려나갈” 새로운 환경으로 전이(轉移)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일상세계와의 결탁을 통해 도달하게 된 “대륙-마-더-랜드”의 실상은 어떠했으며, 경성의 균질화된 시공간을 “낮과 밤”으로 분열시켜 놓았던 스파이 집단의 움직임은 대륙에 이르러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 절로 넘어가 보자.

#### IV. 스파이/협화의 딸과 비결정성의 문화지리

지금까지 『마음의 향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절해고도(絶海孤島)와 같이 속박되었던 식민지 사회주의자들이 초향의 스파이 공작에

의거하여 이념적 “마-더-랜드”와 다시금 연계됨으로써 경성의 균질적 공간성에 분화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문으로 이어진다. 즉 만주라는 공간은 “오리엔탈 클럽”이라는 국제 스파이 집단의 활동에 의거하여 어떠한 변이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떠한 지역/정체성의 기의를 담지하게 되는가?

그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식민지 문학에서 만주는 개척을 통해 새로이 문명을 건설해야 하는 공백지/처녀지의 이미지로서 주로 형상화되어 왔다(김철 2002, 147; 이경훈 2003, 103, 112-115). 가령 이태준의 『농군』,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만주의 개척은 “토민(土民)”으로 지칭되는 토착민들을 계몽하거나 기술에 의거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마적/비적을 소탕함으로써 “아직 세밀한 지도가 되어 있지 않은 황무지”에 통제망을 건설하는 과정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이태준 1939; 이기영 1988, 51; 김남천 1940, 325). 그러나 오족협화(五族協和)·왕도낙토(王都樂土) 등 당대 만주 공간에 투사되었던 제국의 개척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만주는 식민주의와 일치하지 않는 욕망 및 방향성을 지닌 세력들의 유입·교차로 인해 대동아로 무조건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공간적 특성들을 담지하기도 했다. 가령 임성모는 “지배의 공간”이었던 만주의 이미지가 관광·유흥 욕망 및 “만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이국취향의 낭만”이나 “혁명의 꿈”을 실현할 “도주의 공간(asylum)”으로 변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만주를 바라보는 국가주의 일변도의 제국의식에 다변화·균열을 불러일으켰음을 언급한다(임성모 2006b, 110; 2006a, 17-21).<sup>5)</sup>

5) 임성모(2006a, 21)에 따르면 “만철 마르크스주의자”란 본토에서 사회주의 탄압이 심해져 만주로 건너온 후 만철의 조사요원으로 활동했던 전향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대체로 “관동군의 지배정착을 보조하는 사회과학자로 기능”했으나, “1940년대에 빈발한 소위 ‘조직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혁명의 꿈“을 간직한 채 만주를 최후의 보

다시 말해 만주에서 토민·마적·비적 등에 대한 통제에 입각하여 “황무지”를 “법이 지배하는 지대”로서 코드화하고자 했던 제국주의의 운동이 진행되었던 한편으로, 자본주의·사회주의 등 타 운동에 입각한 세력들의 유입은 제국의 공간 장악력을 약화시켜 각자의 분화된 궤적들을 선보이도록 하는 탈코드화의 양상을 동시에 초래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에게 삼 주 동안 대륙여행을 시키고 신제품을 만들라고” 했던 당대의 “성급한 대륙 관광 문학”의 풍조와는 달리, 1920년 베이징으로 건너간 이래 7년간 “대륙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호흡하고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지나·만주의 복잡다단한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한설야는 『대륙』에서 과연 어떠한 세력 관계들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만주의 공간성에 어떠한 속성들을 부여하는가?(한설야 1940a, 2-4; 1940b; 강진호 2008, 30-83).

우선 『대륙』 연재 직후, 한설야가 당대 통용되었던 “대륙문학”이라는 장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선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최근 세 개의 소위 대륙문학이라는 것을 읽었다. 아베 토모지(阿部知二)의 『북경(北京)』과 우에다 히로시(上田廣)의 『땅 타오르다(地燃ゆ)』, 유아사 카츠에(湯浅克衛)의 『북경에서(北京にて)』가 그것이다. (중략)

이 작품은 두 사람의 젊은 지나 여성을 그린 것이다. (중략) 작자 우에다 씨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성격을 겨누고 있었던 것이라. 그러나 전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것이다. 모두 거짓의 인물이며 거짓의 성격이다. 전혀 생기가 없다. 그런 거짓의 인물을 인간이라 생각할 정도로 우리들은 아직 인간에 굶주려 있지 않다. (중략) 일찍이 어떤 사람은 일본 작가는 지나를 왜소화함으로써만 자신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에다 씨도 그러한 의미에서만 꾸냥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작품에 나타나 있듯이 타카키와 어린 꾸냥의 관계가 그 정

---

루로 여기고 투신했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도에 그치고 거기에 하등의 심리적인 거리나 상극(相剋)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류 사회라는 것은 지극히 어수룩한 것이며 이 작품도 아주 명작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좀처럼 그리 간단히 정리될 만큼 감미롭고 알팍한 세계도, 인류도 아닌 것이다(한설야 1940a).

위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한설야는 당대 대륙문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인류 사회”를 “간단히 정리”하여 “감미롭고 알팍한 세계로 왜소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나(支那)를 “날조된 순진한 인형”으로써 대상화하거나 “하나의 입장”을 가시화하기 위한 소재로서 “취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나(인) 자체가 담지하고 있는 “심리적인 거리나 상극(相剋)”에 대해 “보다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모든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만주 또한 『마음의 향촌』의 경성과 마찬가지로 단일 이데올로기에 의해 포획된 무갈등의 “알팍한” 시공간으로서 완결시킬 것이 아니라, “심리나 정신이라는 내면적인 것” 혹은 세력들 간의 “상극”에 오히려 주목함으로써 대륙의 “새로운 성격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지로 분석될 수 있다(한설야 1940a).

우선 한설야는 『대륙』에서 만주를 두고 제국이 표방하는 “하나의 입장”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선보이는 것만큼이나, 변경(frontier)이 담지하는 원심적 견인력으로 인해 각 세력들이 제국이라는 단일 중심성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져가는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작품의 주요 인물이자 개척·계몽의 행위주체로서 등장하는 오야마·하야시의 경우, 만주 입성을 앞두고 향후 조우할 “황무지”의 세력들에 대한 꼼꼼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즉 조집오/조마려로 표상되는 토착민들에게는 후원을 권유하고, 마적들은 소탕하며, 조선 이주민들은 고용·지도·조직하고, 나아가

만주국의 치안을 책임지는 만주군·관동군에게는 보호를 요청한다는 것이다(한설야 2003, 17-22). 그러나 작품의 서두에서 “끝없는 넓이와 깊이”를 지닌 것으로 제시되었던 대륙은 뜻밖에도 “통제망”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들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끔 하는 벡터들을 담지한 것으로 판명된다. 이는 만주의 각 세력들이 제국·만주국·민족 등 대주체가 규정하는 역할들로부터 애초에 조금씩 어긋나 있으며, “빛이 들지 않는 밀림지대”로 구성된 변경의 지형에 의거하여 중심부의 통제력으로부터 이탈한 개별 집단의 행보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즉 “틈이 너무 많아” “아무리 붙잡아도 빠져나간”다는 만주라는 공간 속에서, 토착민·마적·이주민·만주군은 더 이상 중심부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한설야 2003, 12, 25-26). 실제로 작품 속에서 제시되는 마적과의 첫 응전(應戰)은 만주의 각 세력들이 기존에 부여받은 역할/정체성을 얼마나 태만히 수행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마적은 대도회, 구국군(반만군)을 합해 2천명이 넘었다. (중략) 서쪽 산꼭대기에 있던 주력부대가 먼저 만주국 공안대와 육군대를 목표로 사격을 개시했다. 공안대와 육군대는 처음에는 응전했지만 얼마 안 있어 백기를 올렸다. 적은 이미 수일 전부터 이 거리에 숨어들어와 공안대나 육군대를 설득한 것이었다. 이도구 습격 당시, 적에 투항한 이도구 만주국 공안대, 육군대, 집사대가 적과 결탁한 것이다. 입을 맞추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뿐 아니라 군대 밖의 지나가의 주민들도 그들과 결탁하여 포탄세례를 면했다. (중략) 적의 행태는 처음부터 통일성이 없었지만 약탈이 시작되자 점점 더 산만해졌다. 적뿐 아니라 지나가의 상인, 주민까지도 조선가를 약탈하는 데 광란하고 있었다. (중략) 적은 부녀자의 손가락을 잡아 반지를 빼기도 하고 아무데나 어두컴컴한 데로 끌고 가 야욕을 채웠다. (중략) 그들은 일본군이 온 것을 알자 약탈품에서 조선인의 흰옷을 꺼내 입고 조선인으로 가장

했다(한설야 2003, 『대륙』, 34-39).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당시 만주에서 수행되었던 마적 토벌전은 적 소탕을 통해 만주를 주권 권력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연출하고자 했던 제국-만주국의 ‘의례’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손유경 2009, 214).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적군/아군의 대립적 구도 하에 ‘외부’의 적을 소탕함으로써 오야마·하야시를 “도래할 공동체의 주권자”로 정립시켰어야 할 제국의 의례는 뜻밖에도 “통일성”이나 완성도를 거의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제시된다. 실로 이 대목에서는 소탕을 담당하는 ‘내부’의 주체나 ‘외부’의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삼도구를 습격한 적의 정체는 “대도회”로 지칭되는 마적과 반만 세력, “만주국 공안대·육군대·집사대” 및 “지나가의 상인, 주민”들까지도 모두 결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적들은 일본군의 포격으로 인하여 패배할 위험에 처하자, “조선인으로 가장”함으로써 정체성을 곧바로 교체해버리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누구이며, 이들에게 부여되었을 법한 국가나 민족의 의도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아울러 마적/반만 세력/만주군/지나인/조선인이기도 한 이 정체불명의 적군-아군들은 과연 어떠한 동기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인가?

『대륙』에 있어서 토착민·마적·이주민·만주군 등의 역할/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처음 국가나 민족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던 이들은 현재 국가/민족의 의도로부터 탈각된 채 “점점 더 산만한” 행태만을 선보일 뿐이다. 즉 만주군은 마적 토벌이라는 국가의 의도를 배반했고, 반만 세력은 “구국”이라는 민족적 임무는 미뤄둔 채 부녀자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었다. 아울러 지나인들은 “오족협화”의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시아 민족을 약탈했으며, 조선인 이주자들은 마적 습격 이후 “개척”이라는 제국의 임무를 저버린 채 “고국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떼를 썼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민족이 부여하는 역할/정체성으로부터 이탈한 이들은 생존·자본·성(性)·향수(鄉愁) 등의 동기에 입각한 개별 세력들로 “이산(離散)”되며, “언제 관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이들 “부민(浮民)의 산만한” 움직임은 개척자/마적, 만주국/반만세력 등 만주를 제국의 주권 창출에 기여하는 공간으로서 맥락화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이항대립의 정치적 분할선들을 임의로 변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생존·자본·성·향수 등 개별적 동기에 입각한 각 세력들에게 있어서 국적·민족 등의 정치적 범주를 넘나드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이었음이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적들은 “조선인의 흰옷”을 꺼내 입고 순식간에 조선인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교체/정립한 바 있거니와, 현지답사 도중 마주친 마적은 “죽고 싶은가? 아니면 백성이 되고 싶은가?”라는 하야시의 질문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응답했던 것이다(한설야 2003, 28, 63-64). 따라서 이 대목에서 가시화되는 만주는 제국의 주체화/영토화가 자리 잡아 가는 공간이었던 것만큼이나 기존 정체성/구획의 확고함이 퇴색되거나 새로이 구성되기도 하는 것으로 관찰되며, 나아가 제국의 단일한 의도만이 관철되기보다는 다양한 의도에 입각한 복수적 흐름들이 횡행하는 유동적·교차적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만주가 담지한 이러한 “산만한” 공간성은 작품 가운데 배치된 오리엔탈 클럽이라는 장치로 인해 보다 심화된다. 앞서 분석한 바 있듯이 오리엔탈 클럽은 근대성·자본·교통이라는 동인(動因)에 입각하여 세력 간 적대를 주선함으로써, 구조화된 사회를 제각각의

패거리들로 흠여놓고자 하는 전쟁기계의 속성을 드러낸 바 있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오리엔탈 클럽은 국가장치의 “순환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기 위한 음모들을 추진함으로써, 만주를 일방적인 통제·포획의 무대가 아니라 각기 다른 방향성을 지닌 정치적 세력들이 충돌하는 전장(戰場)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단일 세력에 의한 코드화를 방해하기에 이른다. 즉 이들은 “북경의 장학림 장군”의 상여금을 노리고 국제연맹의 릿튼 조사단에게 “일본의 영토침략의 진상”을 알림으로써 “만주국 독립”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꾸민다. 이때 이들의 음모는 주권권력 대(對) 토민·마적이라는 통제 대상으로서 이분화된 듯 보이는 만주에 군벌(軍閥)·국제연맹 등 제국과 호각을 이루는 또 다른 세력들을 연루시킴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지정학적 구도를 형성했던 것이다(한설야 2003, 54, 56, 120).

아울러 오리엔탈 클럽은 “신경과 샌프란시스코 간의 직통 무전기”로 표상되는 범세계적 정보망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토착민·마적·이주민·일본인·만주군·군벌 등이 혼재되어 있던 만주 공간에 영국·미국·독일 등의 국제 세력들을 추가로 끌어들인다. 즉 “뇌물·삼페인·댄서”를 매개로 삼아 “영국 공사 심프슨·미국 영사” 등을 포섭함으로써 “반일, 반만”의 운동을 촉구하고자 했던 이들의 음모는, “동양평화를 위한 우방 만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코드화되어야 할 만주라는 영토를 수많은 외부 세력들과의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국제 관계’의 상충적 판도로서 조각조각 분열시켰다. 나아가 이들의 음모는 제국-만주국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외국의 간섭과 활동”을 침투시킴으로써, “절대적” 위상을 갖춘 듯하던 제국을 타국과의 경합 하에 “일보전진 일보후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개별 세력으로서 강등시켰던 것이다. 이때 “테루(중국화)가 올라가기도 하고 달러가 올라가기도 하고 진표(일본화)가 올라가기도 한다”는

류오락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한설야 2003, 117), 다국적 세력들의 경합의 장(場)으로 탈중심화되는 한편 “자본주의적 일상세계”와의 결탁을 통해 언제든 이탈·배반·전향의 협박이 제기될 수 있는 만주의 변덕스러운 공간성은 일본을 외부의 ‘적’에 대한 소탕을 통해 내부적 권력을 창출해내는 주권의 소지자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주권 수립의 불/가능성을 방어해낼 수밖에 없는 일(一) 구성체로서 위치시키기에 이른다.

한편, 이처럼 제국의 코드화에 대한 방해를 통해 만주를 “산만하고 변덕스러운” 전장(戰場)으로서 변용시켰던 오리엔탈 클럽은 “관동군의 수훈자(受勳者)”인 오야마 요시오 대위를 생포하기 위해 오야마 부자(父子) 납치라는 또 다른 음모를 계획함으로써, 제국 통제력의 허점을 결정적으로 노출시키게 된다. “항일 반만군을 소동하고 만주국 요인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이들의 음모가 “관군 토벌대”에 의해 완전히 제압되었다면, 이는 주권 권력의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제국-만주국이 의도했던 결과로 수렴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륙』에서 반만 세력들의 위와 같은 시도를 실질적으로 좌절시켰던 것은 “관군 토벌대”가 아니라 “조선인 보위단”이었으며, 더구나 적과의 전투에 있어서 오야마·하야시를 비롯한 보위단은 “패배”하고 만다(한설야 2003, 164). 이 두 가지 사실은 주권을 정립시키기 위한 제국적 토벌의 의례로서 독해되었던 반만 세력과의 전투에 대한 재인식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위 사건에서 반만 세력의 습격에 대응하여 전투를 벌인 주체가 관군 토벌대가 아닌 조선인 보위단이었다는 대목은 오야마·하야시가 작품 초반 “당분간 군대의 힘을 빌려” 개척·계몽의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군 토벌대”의 태만함으로 인해 결국 민간인 보위단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다. 즉 작품 초반 이미 “적과 결탁”한 면모를 보였던 만주국 병사들은 “어제까지 자신들의 동료였던 적을 사살하는 것을 별로 내켜하지 않았고”, 당시 “그들을 믿고 기회를 잃을 수는 없으며”, “이때처럼 고독한 적이 없었다”고 느낀 하야시는 결국 부락민들로 구성된 “조선인 보위단”을 신설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한설야 2003, 67-69). 이처럼 “기대를 저버리는” 관군의 면모란 관동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가령 적 습격 이후 “두도구의 군경 부서에 급히 보고해서 지원을 요구할까도 생각하던” 하야시는 결국 “조금 더 형세를 보기로” 결론을 내리며, 나아가 작품 초반 “적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태세로” 마작과 교전했던 “일본 보병부대”는 오야마 부자의 납치사건 당시 오야마의 형이 관동군에 대위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역할도 보여주지 못한다(한설야 2003, 67-69, 141-143; 정은경 2014, 70).

그렇다면 『대륙』에서 드러나는 것은 제국의 공간 장악 시도와 더불어, 약화되는 제국의 통제력 및 위상일 수 있다. 작품 후반에 이르러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오야마의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한설야 2003, 139), 관군조차 적과 결탁하고 제국민이라 할지라도 중앙의 통제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만주라는 공간 안에서는 중심성으로부터 이탈하여 개별 세력이 됨으로써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품 후반에 제시되는 반만 세력과 의 전투는 국가 장치의 영향력으로부터 박리(剝離)되어 민간인 공동체라는 또 하나의 세력을 구축하는 오야마·하야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이처럼 복잡한 세력 구도를 형성하는 만주라는 변덕스러운 공간 내에서, “레일을 점령하고 지키고 있을 뿐인” 제국은 더 이상 우선적이거나 중심적인 범주가 아니라 여러 ‘범주들’ 중의 하나일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한설야 2003,

66). 마적과의 전투 끝에 오야마가 체험하는 “패배”의 시간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즉 “일보전진 일보후퇴를 몇 번이나 반복”한 끝에 “수십여 명의 중경상자”를 내고, 오른쪽 가슴에 “유탄”을 맞음으로써 마적에 의해 생사여탈권을 장악당한 채 혼수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오야마의 패배는 “인생의 전투장”에서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간 영위해왔던 제국 일본인이라는 유일무이한 주체성의 입지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대륙에 존재하는 복합적 흐름들의 일부임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만주 또한 제국적 주체를 창출해내기 위한 균질적 기반으로서 상상되는 동시에 언제든 영토를 침범하여 제국을 패배·후퇴시킬 수 있는 호적수들의 공간으로서, 혹은 “우물 안”에 비유되는 제국의 닫힌 경계로부터 이탈하여 다시 금 복수적 세력들과의 투쟁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제국 “바깥”의 열린 교차로로서 가시화된다(한설야 2003, 160, 164).

한편 반만 세력들을 후퇴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로서 작용했던 조마려의 오리엔탈 클럽 잠입은 산만하고 변덕스러운, 그리하여 고정된 프레임으로 포착할 수 없는 만주의 공간성에도 불구하고 일견 『대륙』에 일정한 정치적 전망을 부여하는 토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즉 일본인인 오야마와 로맨스를 진행한 끝에 “사랑의 과정에서조차도 민족이라는 관념이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체험한 조마려는 “비문명국 인간”인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종적을 감춘 후, 신경의 오리엔탈 클럽에 댄서로 취직한다(한설야 2003, 85-86, 88). 조마려가 이러한 국제 스파이 조직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으나, 이후 그녀는 오야마 부자의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류오락이 “동북 의용군 제6 군단장” 앞으로 보내는 훈령(訓令)을 손에 넣음으로써 민족이라는 관념을 뛰어넘어 오야마와 맺어질 수 있

는 방법을 획득하게 된다. 즉 뜻하지 않은 스파이 행각을 통해 류오락 일당의 음모를 알게 된 조마려는 마적 두목과의 친분을 활용함으로써 오야마 부자를 석방시키고, 토착민-마적-일본인 간에 “화해를 알리는 의례”를 행함으로써 만주에 만연한 ‘적대’를 걷어내는 한편 “이국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과 손을 잡고 가는” “대륙의 아득다운 더 큰 마음”을 실현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댄서로 위장 취업한 끝에 적의 비밀을 손에 쥐고 제국민과의 사랑을 향해 귀환함으로써 ‘무갈등’의 시공간을 창출해내는 마려의 행보는 당대 대동아의 이데올로기 중 하나였던 “오족협화”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제국이라는 대주체로 수렴되는 것으로도 독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마려의 행보가 『마음의 향촌』에서 기생으로 위장 잠입한 끝에 적의 부(富)를 빼돌려 이념적 “마-더-랜드”를 향해 귀환함으로써 ‘투쟁’의 가능성을 창출했던 초향의 행보와 대칭을 이루며, 이때 『마음의 향촌』·『대륙』에 배치된 오리엔탈 클럽이라는 장치는 조마려-오야마의 결합으로 표상되는 ‘무갈등’의 만주 시공간에 “부량한” 식민지 사회주의자들을 꾸준히 투입시킴으로써 다시금 분열의 가능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즉 『마음의 향촌』·『대륙』의 공간은 오리엔탈 클럽을 매개로 하여 연동되어 있으며, 한설야는 이를 통해 제국주의/사회주의라는 각기 다른 흐름에 대한 지향을 동석(同席)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성-만주의 대칭적/연동적 공간성이 시사하는 바는 당대 대동아가 1939년이라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입장”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러 전망들이 상충하는 비결정성(Undecidability)<sup>6)</sup>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결국 누군가는 제국에 귀의

6) 비결정성은 “형식논리에 의거하는 어떠한 체계나 관념이 완결된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원리”이다. 데리다는 괴델에게서 이 용어를 차용하여 “형이상학적으로 완결된 공리체계를 구성하려는 철학들을 해체”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병철(1999, 312), 마이클 라이언(1994, 58-65) 참조.

했고, 누군가는 금전적 이익만을 좇아 부유(浮遊)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마-더-랜드”를 향해 떠났다. 소우주(小宇宙)로서의 아시아를 상정하고자 했던 제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설야는 이데올로기적 불협화음의 공간들이 여전히 제국의 영토 내부에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로 인해 경성-만주를 아우르는 대동아 또한 무갈등의 ‘닫힌’ 공간으로 완결되기보다는 불확실함이 난무하는 ‘열린’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 작품의 대칭/연동을 통해 드러내고야 만다. 그리고 이처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가늠할 수 없는 ‘결정 이전’의 감각이야말로 갓 출옥한, 그리고 전향의 명령만이 가득한 경성을 눈앞에 둔 한설야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일 수 있다. 꽃을 피울 수 있는, 풍요로운 대지의 꿈. 이때 꽃은 제국의 것일 수도 있고 “백성”의 것일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불확실함으로 인해 ‘풍요로운’ 대지야말로 향후의 행보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괴롭고 어지러운 현실이기 때문에 즐겁고 깨끗한 세상이 따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어지러운 그것이 곧 즐겁고 깨끗한 맹아의 소지요 모체요 원인”이라는 작가 자신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한설야 1936), 한설야의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은 언제나 “괴롭고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투쟁하는 인간형이었고, “정리되지 않은 산만한” 현실로 인한 갈등·충돌이야말로 투쟁의 서사를 추동시킬 수 있는 동력이었다. 그리하여 한설야가 추구했던 대륙문학의 지향점은 아래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잡박(雜駁)하고 서로 다른 정신들이 동석(同席)하기도 하며 결론이라는 틀에 붙잡히지 않는” “막연함”으로서 드러난다. 이때 “물가를 떠나는 순간, 성급하게 앞바다의 작은 섬에 안착해버린다”는 구절이 “틀에 박힌 정론(政論)”으로의 귀결을 초래했던 대동아공영권의 정치적 국면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한설야는 “예상보다 빨리 작은 녹도(綠島)에 닿을 던져

버리는” 근해항행자(近海航行者)들의 서사 한가운데 오리엔탈 클럽이라는 전쟁기계를 배치함으로써 인물들로 하여금 완결된 시공간을 떠나 “과감하게 대양을 따라” 가는 흐름을 형성하도록 추동했던 셈이다. 다시 말해 식민지 말기 한설야가 상상하고자 했던 대동아의 문화지리는 제국의 질서로부터 누출된 개별 항행자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갈등·투쟁하는, 포획 이전의 “정리되지 않은” 흐름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 작품에 비하면 유아사 카츠에 씨의 『북경에서』는 (중략) 묘사가 잡박(雜駁)하고 수미(首尾)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몹시 산만하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신이 이 작품 속에 매우 막연히 동석하고 있는 듯하기도 하고, 또한 수필과 소설이 무리하게 접목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중략) 특히 그 결미는 흥미롭다. 『땅 타오르다』의 결미가 보였던 순진함과는 반대로 극히 몽롱하여 붙잡을 데 없는 막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래, 일본인은 매우 성급하여 결론 구하기가 지나치게 급하다. (중략) 그러한 성급한 태도가 문학에 작용하면 그 작품을 알팍한, 여운이 없는 결론—가격표를 붙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작가가 모처럼 좋은 곳으로 배를 짓기 시작했다 싶으면, 예상보다 빨리 작은 녹도(綠島)에 닻을 던져 버리는 것이다. 한번 과감하게 대양을 따라 흘러가보면 어떨까. 작품은, 반드시 어떤 섬에 안착했음을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지드가 갈파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작가는 너무도 작은 근해(近海) 항행자다. 이 물가를 떠나지 않고서 저 물가에 도착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 일본인들은 물가를 떠나는가 싶은 순간, 성급하게 앞바다의 작은 섬에 안착해버리는 것이다. (한설야 1940a, 2-4)

## V. 나가며

지금까지 『마음의 향촌』(1939), 『대륙』(1939)이 선보이는 대칭성을 토대로 식민지 말기 한설야 소설에 나타난 경성/만주 표상을 살펴보았다. 식민지 말기는 조선공산당 검거(1928)·카프 해산(1935) 등을 거쳐 역내 사회주의 운동이 이미 분쇄된 시점이었으며, 경성은 『마음의 향촌』에서 볼 수 있듯이 제국의 “동아고립주의”에 의해 봉쇄된 채 더 이상 이념적 “마-더-랜드”를 “똑똑히 내다볼 수도 없는” “절해고도(絶海孤島)”의 공간으로 표상되었다. 이처럼 운동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경성의 “마르고 여윈” 공간에 직면한 한설야는 자본주의 일상세계와의 결탁을 통해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의 면모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인물들을 ‘살려 갈’ 새로운 대지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공간 축적된 사회주의적 전망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때 한설야는 타 식민지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만주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한설야에게 있어서 향촌과 대칭을 이루는, 아울러 식민지-대륙 간 망명으로 인해 온전히 분리-배치된 시공으로서 그려질 수 없었던 만주라는 ‘새로운 세계’는 과연 어떠한 지역/정체성의 기의를 담지한 채 드러나게 되었는가?

앞서 분석한 바 있듯이 “환경과 싸움”으로써 삶을 모색하고자 하는 투쟁적 태도를 견지했던 한설야는 『마음의 향촌』과 『대륙』의 서사 가운데 오리엔탈 클럽이라는 스파이 집단/전쟁 기계를 배치함으로써, 제국주의에 의해 포획되어 무갈등의 시공으로서 완결될 위험에 처한 식민지 경성에 적대·분열을 촉발시켜 투쟁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금지된 혁명 모국의 사상·담론·공간성을 동아 내부와 다시금 연동시켰다. 나아가 오리엔탈 클럽은 “끝없는 넓이와 깊이”를

지닌 만주라는 공간에 이르러 분주하게 세력 간 적대를 주선함으로써, 만주를 제국의 왕도낙토로서 수렴되는 만큼이나 국제적 충돌·경합의 장(場)으로서 다시금 “산만히” 분화(分化)시켰던 것이다. 더구나 “동양 먼로주의”의 지하에서 끝없이 불화와 충돌을 일으키던 오리엔탈 클럽은 『마음의 향촌』과 『대륙』의 서사 가운데 침투하여 초향/조마려를 각각 스파이/협화의 딸로서 대칭적으로 형상화했던 바, 이처럼 1939년이라는 동일 시점에 선보이는 사회주의/제국주의라는 각기 다른 대주체에 대한 지향을 내포한 서사들은 한설야가 경성-만주를 아우르는 대동아의 문화지리를 다음과 같이 상상하고자 했음을 드러낸다. 즉 대동아는 1939년이라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입장”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러 전망들이 상충하는 비결정성(Undecidability)의 공간이었다. 이때 한설야가 추구했던 대륙문학의 지향점은 개별 항행자(航行者)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갈등·투쟁하는, 포획 이전의 “정리되지 않은” 흐름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적 욕망에 눈이 먼 채 갈등·분열을 영속적으로 초래하는 전쟁 기계에 초점을 맞추어 『마음의 향촌』·『대륙』의 서사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제국에 의해 코드화되는 동시에, 개별 세력들의 박리(剝離) 및 용해(融解)를 유발하기도 했던 당대 문화지리의 해체적 일면을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이처럼 공간성을 국가장치의 포획/전쟁기계의 용해라는 양방향적 운동의 산물로 파악하는 관점은 한설야 문학에 나타난 경성/만주라는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제국-식민지의 공간성 전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보다 역동적이며 입체적인 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 고 일: 2016년 01월 15일

심 사 완 료 일: 2016년 02월 15일

게 재 확 정 일: 2016년 02월 24일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김남천. 1939a. 「산문문학의 일년간」. 『인문평론』 12월.
- 김남천. 1939b. 「토픽 중심으로 본 기묘년 산문문학 중(中)」. 『동아일보』 12월 21일.
- 김남천. 1940. 『사랑의 수족관』. 인문사.
- 金明植·印貞植·車載貞, 1939. 「東亞協同體와 朝鮮」. 『삼천리』 1월 1일
- 심훈. 1994. 『동방의 애인(1930)』. 『우리현대소설 2』. 선영사.
- 이기영. 1988. 『대지의 아들(1940)』.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태학사.
- 이태준. 1939. 「농군」. 『문장』.
- 임화. 1940. 『문학의 논리』. 학예사.
- 한설야. 1936. 「고향에 돌아와서」. 『조선문학』 8월.
- 한설야. 1938. 「감각과 사상의 통일」. 『조선일보』 3월 8일.
- 한설야. 1939. 「『황혼』의 러순」. 『조광』 4월.
- 한설야. 1940a. 「大陸文學など」(日文). 『京城日報』 8월 2-4일.
- 한설야. 1940b. 「천단(天壇): 북경통신」, 『인문평론』 10월
- 한설야. 1988. 『초향』.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22』. 태학사.
- 한설야. 1990. 『한설야작품집』. 동광출판사.
- 한설야. 2003. 『대륙』. 김미란 외 편역.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역락.

## 2. 논문 및 단행본

- 강진호. 2008. 『그들의 문학과 생애, 한설야』. 파주: 한길사.
- 김 철. 2006. “프로레타리아 소설과 노스텔지어의 시공(時空).” 『한국문학연구』 30.
- 김 철. 2002. “몰락하는 신생(新生):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誤讀).” 『상허학보』 9.
- 나명순. 2002. “1930년대 후반의 한설야 소설 연구.” 『우리어문연구』 19.
- 나병철. 1999.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서울: 소명출판.
- 들뢰즈 · 가타리. 김재인 옮김. 2001. 『천 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 마이클 라이언. 나병철 · 이경훈 옮김. 1994. 『해체론과 변증법』. 서울: 평민사.
- 문학과사상연구회. 2000. 『한설야 문학의 재인식』. 서울: 소명출판.
- 손유경. 2009. “만주 개척 서사에 나타난 애도의 정치학.” 『현대소설연구』 42.
- 서영인. 2008. “일제말기 김남천 문학과 만주.” 『한국문학논총』 48.
- 신형기. 2013. “식민지 시대 계몽(개척)소설을 통해 본 새마을운동 이야기.” 『사이』 15.
- 아르노 빌라니 외. 신지영 옮김. 2012. 『들뢰즈 개념어 사전』. 서울: 갈무리.
- 이경훈. 2003.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 4(1).
- 이경재. 2010. 『한설야와 이데올로기의 서사학』. 서울: 소명출판.
- 이진경. 2002. 『노마디즘 2』. 서울: 휴머니스트.
- 임성모. 2006a. “근대 일본의 만주 인식: 제국의식의 정치·문화적 자장.” 『북방사논총』 12.
- 임성모. 2006b.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근대 일본의 만주 여행과 제국의식.” 『일본역사연구』 23.
- 정은경. 2014. “만주서사와 비적.” 『현대소설연구』 55.
- 정종현. 2011.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파주: 창비.

Abstract

---

## The Representations of Gyeongseong/Manchuria in Han Seol Ya's Novels and Undecidable Cultural Geography

HA, Shin Ae

Visiting professor,  
Bangmok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representations of Gyeongseong/Manchuria in Han Seol Ya's *Inward Hometown* and *Continent*. The focus is on “machine de guerre” which constantly cause divisions and conflicts to satisfy capitalistic desire in those two spaces. Han Seol Ya, committed to his militant attitude, inserted a gang of spies/machine de guerre called known as the ‘oriental club’ into the narratives of *Inward Hometown* and *Continent*. Their role was to trigger possibilities for struggle in Gyeongseong/Manchuria which was in danger of becoming a conflict-less space of homogeneous imperial rule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By using this literary device of the ‘oriental club’, Han could represent The Greater East Asia as a space of undecidability, with several violence-filled prospects that could not be expected to

converge toward a single system. Han Seol Ya' imagination of Gyeongseong/Manchuria visualized the aspect of deconstruction that motivated each force's decentralization and dissolution. Moreover, this paper tries to grasp spatiality as a product of movements in both directions (capturing the state system and dissolution due to the machine de guerre), which is worthy of notice because it creates the possibility for more stereoscopic analysis of general spatiality, even outside of Han Seol Ya's text.

**Keywords:** Gyeongseong, Manchuria, the Greater East Asia, regional identity, cultural geography, machine de guerre, undecidability